

2014년 12월 8일 새벽말씀

네, 새벽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를 듣고 신앙적 형이상학 세계나 또 육적인 형이하학의 두 세계에서 우리가 배우기만 하지 말고 즉시즉시 써먹으라는 것입니다.

“즉시 써먹어라. 밭에 감추인 보화다.”

오늘 아침에도 또 말씀을 하겠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전반전에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했는데, 보화란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 황재 만났다. 엄청나다.”

보화 값을 다 내고서 보화를 얻는 것이 아니라 밭 값만 내고 보화를 얻기 때문에 엄청난 것입니다. 밭 값만 내고.

어떤 선머슴이 남의 밭을 갈러 가서 밭을 갈다가 그 큰항아리가 묻혀있기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금, 보석이 꽂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가서 “나, 이것 사겠다.” 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밭만 산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밭을 팔 마음 없습니까?”

“왜요?”

“밭을 보니까 곡식이 잘 되겠습니다.”

“에이, 무슨 곡식이 잘 됩니까. 내가 해마다 거기다 곡식 농사했는데 실패했는데..”

“그러면 내가 거기에 과일나무를 심으면 어떨까요?”

“과일나무 심는 것은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것 팔 마음 있으면 파시오.”

“팔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밭 값만 주고 샀다는 것입니다. 보화 값은 주지 않고, 그 값만

주고 사니까 그것이 보화라는 것입니다.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보화 값을 다 내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에게 유익이 별로 없습니다. 똑같은 값을 주니까, 그 돈 가지면 다른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화를 발견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금 덩어리나 조상들이 묻은 보화를 발견한 것만 보화라고 생각하는데, 무엇이 보화인가 하니 ‘자기가 보화’라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이!

“자기 인생이 세상 밭에 묻힌 보화다. 세상에 묻힌 보화다. 보화를 발견하라. 인생 보화. 자기가 보화다.”

선생은 그 전에 나를 천대하고, 나를 학대하고, “바보 같은 것. 병신 같은 것. 못 생긴 것. 키도 크지 않고, 공부도 못 하는 것. 얼굴도 못 생긴 것.” 맨날 나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세상에 나가봤자 누구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일이나 열심히 하자. 그런데 일도 안 하려고 하고, 잠도 늦게 자고. 아이고, 병신.” 맨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기도하며 성서를 계속 보았습니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이다? 그런 사람만 해당되는 것이지 무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어?” 그러면서 말씀을 그렇게 읽었습니다. 결국적으로 ‘아, 내가 귀하다.’하는 것을 서서히 느끼기 시작했고, ‘내가 제일 귀하다.’ 느끼는 단계까지 깨닫고 행동하는 단계로 올라왔습니다.

‘나 아니면 지구상에 있는 60억도 못 한다.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된다. 그렇다면 60억이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일하는 것, 무엇 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안 하면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딱 것 없다. 귀한 일을 해야 된다. 내가 깊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을 때는 내가 말 안 하면 모른다.’ 이와 같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깊은 진리를 깨닫고 “내가 말 안 하면 몰라.” 그 소리를 잘 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말 안 하면 지금까지 몰랐으니까 “내가 말 안 하면 몰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런 것을 깨달은 말씀들입니다.

“성서의 깊은 진리의 말씀도 보화다. 밭에 감추인 보화다.”

성경 속에 있는 보화를 내가 이야기해 볼까요? 성경 속에 있는 보화!

자기가 보화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꼭 못을 박아놓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기가 보화다! 그 터전 위에서 또 말씀을 듣겠습니다.

나는 ‘자기가 세상에 감추인 보화다! 가정에 있는 여러 형제들 가운데 나는 감추인 보화다!’ 이와 같이 생각했습니다. 결국 보화였습니다.

“형제들 가운데 나는 감추인 보화였다.” 그렇지요? 그 대신 자꾸 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지 땅도 세상에 감추인, 대한민국에 감추인 보화였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렇게 보화가 못 되었다. 개발해서 보화를 만들었다.” 했습니다.

보화나 금을 캐면 그것을 ‘세공 한다.’고 합니다. 세공은 다른 말로 하면 ‘가공한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베어왔으면 그 나무를 갖고 깎아서 사람을 만들고 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쌉니다. 그러면 10배, 20배, 30배 더 비쌉니다.

세공 하듯이 자기도 만들어라! 그러면 비싼 인생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 정말로 나는 막연하다.’ 합니까?

그것은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있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다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아, 나를 어떻게 개발하라는 것이지? 나, 미치겠네.’ 그러는데 그럴 것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말씀을 주고, 말씀 깨닫고 따라오는 사람은 벌써 그렇게 개발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릅

니까? 개발된 것을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더 하라’는 것은 본인들이 자기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나무 베어다가 깎아서 거의 다 멋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말씀 듣고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돌 갖다가 가공해서 조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 나는 옛날과 똑같은데요?” 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다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사포질하고 멋있게 만들고 그런 것만 하면 됩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거의 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한테 오면 또 지적 받고, 또 혼나는 것은 거의 나와 같이 만들어 버리려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되면 족하다.” 그 단계까지 가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와 속에 있는 이야기를 마음대로 털어놓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단계까지!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온 사람들도 보화같이 거의 되었습니다. 이미 반지는 만들었는데 조금 크고 작고가 있습니다. 그것이 크면 못 끼입니다. 나도 제자들이 반지를 해 주고 그랬는데, 끼어보면 마디가 안 들어갑니다.

내 손은 어떤 여자의 손같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옛날 일하던 가닥이 있어서 마디가 굵습니다. 나의 반지 사이즈는 나도 모릅니다. 거기에 신경을 안 쓰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만들어 놓았으니까 자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 쓰라는 것입니다. 반지를 선생님이 다 만들어 놓았는데 안 들어갑니다. 그것은 조금 늘리기만 하면 됩니다.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그런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밀하게 하는 것이 보화이다!

무슨 일을 할 때 세밀하게 하면 그것이 보화입니다. 보화를 가공할 때 세밀하게 합니다. 세공할 때 세밀하게 합니다.

보석 같은 것을 가공해 놓은 것을 보십시오. 쓰부 다이아 같은 것, 가짜 다이아몬드 그 작은 것을 다 물려놓은 것을 보십시오. 다 물려 놓았습니다. 세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 무슨 일을 할 때 세밀하게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니다. 바늘귀를 꿰듯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세밀하게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세밀히는 하는데 또 큰일은 못 합니다. 세밀하게 하면서도 큰일도 해야 됩니다.

자동차 만들 때에 어떤 것은 웅장한 것을 만드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것은 세밀한 부분도 있습니다. 모래 하나만 끼어도 차가 못 갈 정도입니다. 그것은 세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큰 것도 잘하고, 작은 것도 잘해야 됩니다. 큰 것도 세밀하게, 작은 것도 세밀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밭에 감추인 보화들입니다. 보화의 행실들입니다. 보화가 되는 행실들입니다. 그냥 건등건등하면 안 됩니다.

말을 할 때도 또박또박 세밀하게 하고, 옆의 사람에게도 세밀하게 해야 됩니다. 사람도 세밀하게 관찰하고, 세밀하게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밀한 하나님입니다. 자상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중을 들려면 세밀하고 자상해야 됩니다.

나부터도 항상 그렇습니다. 건들건들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겼는가 다시 보고, 또 다시 보고, 또 세밀하게 봅니다.

옛날에 선생님은 라디오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 뜯어보았습니다. ‘그 속에 무엇이 들었는가? 사람이 몇 명이나 들어있는가? 여자도 들어있고 남자도 들었나?’ 그래서 뜯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뜯어보아도 없었습니다. ‘이 놈들이 도망갔나?’ 그렇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세밀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 컵도 ‘아, 이것은 몇 센티이다. 이것은 길이가 10센티이다.’ 압니다. 세밀하게 보아서 다 압니다.

계속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센티미터 공부, 무게 공부를 해서 탁 쳐다 보면 ‘저것은 몇 킬로. 저것은 몇 센티.’ 하고 압니다. 선생님은 영감도 그렇게 닦은 터전 위에 영감이 있는 것입니다.

딱 보면 “너는 체중이 62키로, 너 키가 64이지?” 하는 것은 하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쳐다보면 딱 얼마라고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하

라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는 자기다. 그리고 세밀하게 해야 된다. 세밀하게 가공하고, 세밀하게 자기를 만들어라.”

많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집중적인 이야기만 해 주겠습니다. 이 “밭에 감추인 보화”는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자기가 보화라는 것입니다. 자기 갖고 먹고사는 것입니다. 자기 기술 갖고 먹고살고, 자기 기술 갖고 인생 살고 그러니까 자기를 계속 개발하고 만들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화로 쓰여지기 위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보화! 행동의 보화!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형이상학적으로 하면 생각, 정신의 보화이고, 그리고 육체의 보화입니다.

“아, 나는 미약하고 약한데.” 하면, 그것을 세공해야 됩니다. 강하게 세공 하면 됩니다.

가령 철이 있습니다. 철이 있는데 너무 약합니다. 그것을 아주 빨강계 달구다가 찬물에 딱 집어넣으면 10배 이상 강해집니다. 그러면 강철이 됩니다. 세공할 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마음이 너무 뻣뻣해.” 합니까? 지금 마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철로서 비유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너무 약해. 너무 부들부들하고 강하지 못해.” 그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쇠는 담금질입니다. 어떻게 세공 하느냐면 아주 뜨거운 불에다 넣었다가 찬물에 딱 넣으면 그렇게 강해집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뜨겁게 활동해야 됩니다. 차갑게도 활동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강해집니다.

호리멍덩해서 “너, 이것 어땡느냐?” 하면 “나도 모르겠어. 그냥 그래.”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 그것은 아니야. 그것은 맞아.” 그렇게 하고, 그렇게 성격을 만들면 강한 성격이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성격이 너무나 강하다.” 그런 사람은 철을 만들듯이 하는데, 철을 빨강게 달구어서 물에다 넣지 말고 그냥 식히면 부들부들해 집니다. 엇가락 같지는 않지만 부드럽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한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유연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성격의 보화를 가공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격, 성질, 정신, 사상, 영! 이런 것을 가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도 그렇게 만들면 강해 집니다.

육신도 “나는 육신이 너무 약해. 나는 너무 약해.” 그러면 자꾸 팔운동 하면 됩니다. 여자도 앉아서 자꾸 맨손 갖고서 운동해 보십시오. 아령 하듯이 계속 하면 한 석 달만 하면 알통이 나오고 엄청납니다. 아령을 살 것도 없습니다. 그냥 맨손 갖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힘을 빼고 하면 안 됩니다. 힘 빼고 하면 그냥 근육 운동만 됩니다. 힘을 딱 주고 무겁게 해 보십시오. 이것을 한 달만 하면 알통이 딱 배겨버립니다.

그와 같이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짱 보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습니다. “인생 살기가 쉽다. 너무 어렵지 않다.”

보화! 자기가 보화라는 이야기를 끝없이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찾아 봐요. 자기가 보화라는 것을.

생각도 보화, 사상, 정신, 사고, 행실 이것이 다 보화입니다. 그리고 몸 자체도 보화입니다.

몸 자체도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보화입니다. 알겠습니까? 벤츠보다 나을 것이 아십니까? 리무진보다 나을 것이 아십니까? 그러니까 자기 몸을 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자기 몸 자체가 보화입니다.

흔히 보면 “나는 쓸모가 없다.” 하고 자포자기하는데, 왜 쓸모가 없습니까?

내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로 쓸모없는 인생입니다.”

“나 밥 좀 해 줘.”

“밥도 못 해요... 밥도 할 줄 모르고 아무 것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쓸모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가르쳐 주면 할 수 있잖아.”

“가르쳐 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되는 것이다. 가르쳐 주는데도 못하느냐?”

“그런데 감각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물 한 컵하고, 쌀은 어느 정도 넣으면 딱 맞는다. 그렇게 하면 100% 밥이 된다. 그것도 못해?”

가르쳐주면 됩니다. 배우면 됩니다. 그런데 흔히 사람들은 해보지도 않고 아무 것도 아닌데 겁 먼저 집어먹습니다.

세밀하게 하라고 하면 “나는 세밀하게 못 합니다.” 합니다. 나는 세밀하게 안 하는 것을 못 합니다. 그것이 안 됩니다. 세밀하게 하는 것은 잘 되는데, 세밀하게 안 하는 것은 못 합니다. 그것을 못 합니다. 그것은 안 해집니다. 기계 자체를 고쳐 놓아 버렸습니다. ‘나’라는 사람을 깎아서 그렇게 세밀하게 해 놓았습니다.

세밀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입장인가 하니, 밥을 먹어도 압니다. 그런 사람들은 밥도 두어 번 깨물어서 그냥 넘겨 버립니다. 그냥 퍽퍽 먹고 말아 버립니다. 그렇게 짐승 밥, 돼지 밥 먹듯이 먹습니다. 소가 먹듯이 먹습니다. 소는 다시 되새김질을 하지만 사람은 다시 게워서 못 깨물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잘 씹어야 됩니다. 그렇게 급한 사람을 보면 항상 일생동안 급하게 살아나갑니다. 맨날 급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유 있는 사람을 보면 큰일을 맡고 엄청난 일을 맡았어도 무겁게, 여유 있게 살아나갑니다. 알겠습니까?

나이를 먹으면 같은 일을 해도 안 지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은 힘을 다 쓰지 않습니다. 손끝으로 합니다. 나이 먹을수록, 나이 먹으면 손끝으로 일을 합니다. 갈짝갈짝 합니다. 그래도 일은 다 합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온몸의 힘줄을 당기면서 힘을 주어서 합니다. 삼질을 해도 힘줄이 당기게 합니다. 그러면 오래 못 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일은 힘을 빼고 하라.” 그것도 보화입니다. 아이디어 보화입니다. 힘을 빼고 하라는 것입니다.

운동할 때도 힘을 빼고 하고, 무용할 때도 힘을 빼고 하고, 배구할 때도 힘을 빼고 하고, 농구할 때도 힘을 빼고 하고, 축구할 때도 힘을 빼고 다 힘을 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힘이 필요 없습니다.

범정 문제 할 때도 힘을 주고 막 하다보면 지쳐 버리고, 자기가 지쳐 쓰러집니다.

모든 일은 힘을 빼야 됩니다. 사랑할 때도 힘을 빼고, 그리고 일을 할 때도 힘을 빼는 것입니다.

힘을 다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10분의 1만 가지면 모든 일을 다 청산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원리입니다. 그것을 두고 인생살 때의 아이디어 보화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톱질할 때도 힘을 주어서 하면 막 끊어갈 것 같아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힘을 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흥부가에서 “슬근슬근 톱질하세.”라고 나왔습니다. 슬근슬근해야 됩니다. 그래야 딱딱 먹어 들어갑니다.

볼 칠 때도 발을 다 뻗고 차면 멀리 안 나갑니다. 슬쩍 툭 차면 배(倍) 이상 많이 나갑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라는 보화 가공하는 법을, 자기 인생 가공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겁 집어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딪혀 보고, 따져보고, 이야기해 보고 자꾸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나가십시오.

어떤 사람은 힘주는 사람은 걸어갈 때도 힘을 주고 걸어가서 그 사람이 걸어가면 땅이 파입니다. 시멘트 콘크리트가 파일 정도로 걸어갑니다. 그러면 피곤합니다.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발에 감추인 보화 중, 자기라는 보화를 집중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자기가 귀한 것을 모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보화입니다.

자기라는 보화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면 모든 보화를 볼 줄 압니다. “아, 이것은 보화다. 이것은 무엇이다. 이것은 귀한 것이다.” 이와 같이 볼 줄을 압니다. “저 사람은 보화 인생이야. 저 사람은 귀한 자다. 저 사람은 보화다. 뭐다.”

우리 섭리사는 하나님께서 보화이니까 불러왔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깨달을 것! 그래야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섭리사의 모든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저 여자는, 저 남자는 하나님이 볼 때 보화이니까 이렇게 섭리사로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고기를 잡는데 그 중에 인어, 상어, 고래, 문어 이런 고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고기들을 싹 잡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놔두고 나쁜 것만 잡아들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섭리사에 온 사람들은 나름대로 보화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서 딱 끄집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개발해야 보화가 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키워 보아야 됩니다.

인어, 그리고 상어도 미꾸라지만 한 상어이면 큰 보화가 못 됩니다. 보화에 해당되는 자료일 뿐입니다. 그때는 기르면 됩니다. 여기 섭리사에서 크고 크면 인생 보화가 됩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열심히 크라는 것입니다.

선생님도 처음에는 별 보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크면 보화가 된다.” 그러셨습니다. “크면 네가 여기의 보화가 된다.” 하셨습니다. 자꾸 크라고 했습니다.

월명동도 제일 처음에는 보화가 아니었습니다. 보화라는 지역이었지만, 개발하니까 보화가 되었습니다. 개발!

그렇게 하면서 자기 보화를 깨닫고, 자기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온 지구상에 있는 각 나라 모두는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보화로 만들고, 자기 생각과 아이디어 자기 주관 이런 것을 말씀으로 지혜를 받고 지식

을 받고 얻고 총명을 얻고, 그 머리를 갖고 씹먹는 것입니다. 다 씹먹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설교할 때만 씹먹는 것이 아니라 다 씹먹습니다. 지혜를 갖고서 물건 살 때도 씹먹고 다 씹먹습니다. 왜 지혜를 갖고서 설교할 때만 씹먹습니까? 이지가 밥 먹을 때도 씹먹고, 밥할 때도 씹먹고, 하는 데마다 다 씹먹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갖고 다 씹먹으니까 하는 것마다 지혜롭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도록 이미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갖고 본인들이 깨닫고 알라는 것입니다. 모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지런해야 됩니다. 자기 일은 내가 못 해 주니까 본인이 해야 됩니다. 가다가 지치고 뭐하고.. 바보들입니다. 진짜 바보 같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력을 안 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하되, 공연히 필요 없는 짓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필요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는 자기 인생이 보화라는 것을, 아주 핵을 말씀했습니다. 다른 것 하나 더 하려고 했지만, 두 개를 하다보면 하나가 악화되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자기 인생이 보화이다. 보화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섭리에 불러왔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인생을 나누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생철학을, 신앙철학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기가 모든 일을 할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아주 가소롭게 생각하면서 하라.”

언어를 배우는 것도 그렇고,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쉽습니다.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결국 배우고 나니까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나는 축구도 배우고 이것저것 다 배우니까 “결국은 쉬웠다.”합니다. 결론은 쉬웠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고, 설교이고, 어떤 것이고 알고 보면 다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엄두를 못 냅니다. “나는 평생 그것 못하겠다.” 합니다. 아무 것도 아닙니다. 집을 짓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 해보아서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를 해 버리면, 그와 같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와 같이 그러하다.”

“세상의 고기는 어떤 고기든지 바다 고기를 민물에다 넣으면 죽는다.” 그것은 원리입니다.

“민물고기를 바다에다 넣으면 죽는다.” 그것이 원리입니다. 어떤 고기든지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를 배우면 다 쉬운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선생은 처음 해보아도 잘 합니다.

“에이, 선생님 처음 해본 것 아니지요?”

“아니다. 나 처음 해 본다. 내가 네 앞에 맹세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느냐?”

“그런데 너무 잘해요.”

왜냐하면 처음 해 보았어도 똑같은 원리이고, 똑같은 동질 동료소이고, 똑같은 동향이기 때문입니다. 차원만 다를 뿐이고, 그 일에 따라서 방법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같은 공식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 같은 공식에 의해서 하는데, 개성적으로 하는 일만 다를 뿐이다.”

그렇지요? 남자 중 나 하나를 배우면 지구상에 있는 남자는 다 배우는 것입니다. 장사꾼 소질, 재질 하나만 있으면 그와 공통적인 것은 다 똑같습니다.

집을 짓는 원리도 그렇고, 화장실 원리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같은 원리로, 같은 흐름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그와 같이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의 보화는 “그와 같이 그러하다.”하는 것입니다. 같은 동질 동향으로 흘러갑니다. 상대를 아는 것도, 적을 아는 것도, 가

라지와 행악자들을 아는 것도 그런 것을 알고 투시하고 정확하게 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선생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했습니다.

제자들이 “선생은 병을 고치는데 왜 나는 못 고칠까요? 왜 제자인 저희들은 못 고칠까요?” 하니까 “이름만 제자이지 나와 같은 원리로, 나와 같은 그런 방법으로 못하니까 안 고쳐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알겠습니까? 조은이가 병을 고치니까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그런 소문이 잘 안 나더라고요.

내가 늘 그랬습니다. “조은아, 나는 하는데 왜 저들은 못 하느냐? 누가 병도 고치고, 불길을 막 일으키고, 말썽을 하면 불이 막 떨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한다. 네가 가서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안 됩니까? 왜 안 될까요? 선생같이 안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하면 다 됩니다.

누구 하나만 똑 떨어지게 별을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섭리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왕은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 안 나올까?’ 하는데, 자기 병을 못 고칩니다. 자기 병을 고쳐야 됩니다. 자기가 기도해서 자기 병을 고쳐야 됩니다.

나부터도 지금 눈물을 다 뺐습니다. 이제는 눈물샘으로 작용하면서 들어가는데, 한 70%의 눈물이 그리로 내려갑니다. 계속 기도하면 그 날은 눈물이 잘 나옵니다. 그러나 기도 안 하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물건 사러 갈 때도 “예수님, 오늘도 물건 맛있는 놈으로 잘 사게 해 주세요. 정말로 잘 사게 해 주세요. 내 돈이 하늘 돈이 아닙니까?” 하며 하나님 부르고, 성령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계시고, 성령님은 감동을 시키고,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실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면 됩니다.

그와 같이 항상 기도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됩니다. 하면 됩니다. 어느 물건도 옮기면 옮겨집니다. 저리로 가져가면 저리로 갑니다.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됩니다. 먹으면 먹어지고, 안 먹으면 안 먹어집니다. 알겠습니까?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그 이야기가 잘 이해가 됩니까? 무엇이든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됩니다.

은혜 받으려고 하면 금방 은혜가 받아집니다. 금방 줍니다. 왜? 그렇게 아예 인생을 자동장치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면 다 되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면 되게 만들고, 안 하면 안 되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안 하는데 됩니까? 자기 앞에 밥을, 진수성찬을 갖다 놓았는데 자기가 안 먹었습니다. 그러면 한 손갈도 안 들어갑니다. 먹으면 들어갑니다.

그와 같이 “세상 모든 것이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된다. 부지런히 뛰고 달리면서 하라.” 그것입니다.

선생님 설교는 100번, 1000번 들어도 맨날 감동적입니다. 사실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기를 그렇게 해 나가십시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생님, 저는 솔직히 말해서 너무 어렵습니다.” 하는데 내가 기도해 놓았으니까 이제 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설교 들었으니까 다시 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침마다 그럽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애인으로 만들어 놓았으니까, 내가 된다고 했으니까 꼭 되게 해 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본인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본인도 어느 정도는 힘을 주어야 넘어갑니다. 전혀 안 하고는 안 됩니다. 본인이 반 이상은 한다고 생각하고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별떡 넘어갑니다.

일을 할 때도 자기가 반 이상은 표가 확 나고, 나머지를 자신 있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안 하면서 된다고만 하지 말고, 행동하면서 된다고 하면서 계속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구상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상해 놓고, 그 다음에 가서 감행해서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모든 작가들도 작품을 할 때 그렇게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모든 일을 할 때 그렇게 재미있게, 뜻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힘들어.’ 하지 말고,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딱 돌려놓습니다. 기도해도 얼마큼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믿어주느냐? 그것도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고, 기분 좋게 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나부터도 그렇습니다. 누가 “선생님, 저는 틀렸습니다.” 하면 “그래. 틀렸다.” 그렇습니다.

자기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나 “내가 이렇게 안 되었어도 선생님이 하면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비웃으면서 “내가 한다고 무엇이 되느냐? 네가 안 하는데.” 그렇게 해도, 계속 들어붙어 있으면 선생님께서 그냥 손가락 하나의 힘 갖고서 해 줍니다.

“네가 나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 위신을 안 꺾고 나에게 대한 권한을 꺾지 않고 나의 위신을 세워 주었기 때문에 되게 해준 것이다.”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 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가 보화라는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자기 인생이 보화다. 생각 보화, 육체 덩어리가 보화, 그리고 자기 영, 아이디어 모든 것이 보화이다. 자기의 보화를 확실하게 만들고, 세상에 나가서 써먹어라. 자기를 지혜의 보화 되게 만들고, 자기를 지식의 보화 되게 만

들어서 지식과 지혜로 꿰뚫어보면 다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자기 인생의 보화를 확실하게 깨닫고, 만들고, 가공하라고 그랬습니다. 나무를 조각하듯이! 그러면 10배, 20배, 50배 더 값있는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월명동 성지땅도 하나님의 구상대로, 그대로 우리가 했습니다. 하나님이 돌 갖다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은 갖다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지시하시고, 그리고 돌 갖고 오는 것을 돕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쓰고 일했습니다. 이와 같이 만드니까 성지땅 보화가 되듯이 우리들 개인도 만들고, 모든 환경을 만들면 보화가 된다고 했습니다.

만들 때는 힘들지만 만들어 놓으면 일생 동안 써먹는다고 했으니 그리함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주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사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충만할지어다. 아멘.

빠이빠이! 안녕!